

Good Plans for a Good Future
November 17, 2024
Bo Stern-Brady

좋은 미래를 위한 좋은 계획

2024년 11월 17일

보 스텐-브래디

예레미야 **29:11** 배경 & 리뷰

"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안다."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"너희를 해치려는 계획이 아니라,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." (예레미야 29:11)

미래 (**אַחֲרַיִת**, 'a·hă·rîṭ)

여성 명사 단수

히브리어 **Strong's 319: 1)** 끝, 사건, 결과 **1a)** 끝, 결과, 사건 **1b)** 미래 시간 (예언적 미래) **1c)** 후손 **1d)** 마지막

끝을 향한 완성. 마지막 장. 이야기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. 시작, 중간, 끝이 있다. 그리고 그것은 좋다.

구약은 구속에 대한 약속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. 신약은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보여주지만, 구약은 실제 약속들을 담고 있다... 구약은 또한 이 세상의 왕국들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권력 구조와 가장 치열한 전투들을 포함한다.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든 세상의 혼란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.

그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 있었다. 그들은 집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.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십니다. 그분의 말씀은: 미래.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고, 그 무언가는 좋다.

우리는 '후손'이나 '유산'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. "내가 이 세상에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?"는 종종 우리가 묻는 질문이다. 그러나 지금 내가 묻고 싶은 더 중요한 질문은: "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?" "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의 결승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?"

슬라이드 1

"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기는 것처럼,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 잃은 것이라고 여깁니다.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.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. 나는 율법에서 나오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,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,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얻고자 합니다.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—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, 그의 죽음에 있어 그와 같이 되는 것, 11. 그러므로 어찌 되었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."

- **빌립보서 3:7-11**

저는 "알다"라는 단어에 대한 이 정의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:

주동사에서 나온 장기간의 형태; 다양한 응용과 많은 함의를 가진 "알다". 맞아요, 다양한 응용과 많은 함의가 있는 것이죠.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. 바울은 그분을 아는 몇 가지 방식을 언급합니다: 그분의 능력 안에서, 그분의 고난 안에서, 그분의 죽음 안에서, 그분의 부활 안에서. 저는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함의는: "내가 그와 같아진다"입니다. 내 생각, 감정, 결정, 관계... 이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것처럼 보이고, 것처럼 말하고, 것처럼 느끼고, 것처럼 사랑하게 됩니다. 내 삶의 죽은 부분들이 다시 심장 박동을 가지게 됩니다. 내가 갈혀 있고 두려워하며 묶여 있었던 곳에 자유가 찾아옵니다.

슬라이드 2

"이로 인해,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 나서부터,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고는 못 배기며,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내가 기도하는 것은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더 잘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."

- **에베소서 1:15-17**

슬라이드 3

1. 그분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해 아는 것과 다릅니다.

슬라이드 4

"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: '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,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, 부유한 자는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.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이것을 자랑할지니, 그들이 나를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, 나는 주님이시며, 내가 땅에서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임을 아는 자라야 한다. 이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.'"

- **예레미야 9:23-24**

슬라이드 5

1. 그분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해 아는 것과 다릅니다.
2.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과 다릅니다.
마침내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?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. 미래에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?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?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.
우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? 묻는 것입니다.

